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타 개장

총 13억3백만원 투자, 완공
생약가공 공장 설립 계획도

정선군내 생약종합유통센타가 지난 10월 8일 완공식을 가졌다.

정선군 애산리 432의 1 현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정선군수를 비롯, 각계인사와 2백여명의 인근 생약재배 농민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국고 보조 1억원, 도지원금 6억3천8백만원, 군비부담 5억6천5백만원 등 총사업비 13억3백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착공해 1년만에 완공된 생약종합유통센타는 부지 2천7백67여평에 건평 6백25평 규모로 건물내에는 상가 3백43평, 공판장 1백96평, 86평의 전시 판매장을 갖추고 있다.

약초시장의 운영은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대표 유석근)이 맡게되면 년간 사용료는 5천여만원. 상가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미 94년산 약초류 생산작업에 들어갔다.

정선군은 또한 정선읍 애산리 592의 9에 생약가공공장 설치를 추진중이다.

국비보조 10억원, 군비부담 10억원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건립될 생약가공 공장은, 부지 1천44평, 건평 4백80평(공장 4백30평, 창고 50평) 규모로, 내년 6월 신축될 계획이다.

생약가공공장이 건립되면 정선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황기, 당귀, 시호, 강활 등의 약초를 이용, 엑기스 차 음료 등의 신상품을 개발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 수요창출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켜나감과 동시에 산지가공을 통한 고용효과 및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용작물 학술 발표회
지난 10월1일 농촌진흥청서

한국약용작물학회(회장 이정일)는 지난 10월 1일, 94정기총회 및 제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행사는, 학술발표회에 앞서 마모르 노구찌박사(와까야마 약용식물 재배 시험장장)의 「약용식물의 조제, 가공법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특별강연과 안덕균 박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한약재의 본초학적 이해와 발전 방향」 특강이 있었다.

이정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방화시대 우리앞에 당면하고 있는 약용작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중지를 모으고 이를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마모르 노구찌 박사는 특강을 통해 『약용식물의 조제가공법이 생약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실은 50℃에 열풍건조할 경우 자연건조보다 후라보노이드와 리보빈 함량이 높았으며 황기, 반하, 작약은 생근의 근피를 제거한 후 열풍건조하는 것이 양질생약재 생산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학술발표회는 제1부 육종·재배분야와 제2부 품질·생물공학 분야로 각각 나뉘어 진행됐으며 「지황의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번식과 토양활착」을 포함 총 3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사 설

농민의견 충분히 반영되길

한약재 규격화 공청회가 오는 11월 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청회란 원래, 어떤 정책 시행에 앞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므로서 현실적여건을 타진해 보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청회는 당연히 보사부가 규격화 고시를 하기 전에 개최했어야 옳았다.

어찌됐건, 이제라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데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쌍수들고 환영할 만큼 그리 반갑지만도 않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 공청회가 자칫, 규격화 고시를 합리화 하기 위한 하나의 모양새 내기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생산자들에게 생산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규격화 고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화 단행 움직임으로 일관해온 그간 보사부 방침을 봐서도 그렇다.

더군다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직접적인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들에 공식 통보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데는 마지못해 형식을 갖춘다는 인상이 더욱 짙다.

규격화 방침을 밝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사부는 내년 4월 시행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진정서에 따른 보사부장관의 회신에 의하면 생산자가 세척, 건조, 절단하는 것은 농산물 생산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고 약사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약관리 규정(초안)에 보면 규격품의 제조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한약 취급업소가 자가 규격을 만들기 위하여 물량을 구입할 경우 읍면 동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생산자 증명을 첨부토록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생산자가 제조하는 것은 규격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산 17종에 대한 규격화고시는 철회할 것과,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세척, 건조, 절단 포장한 것은 규격품으로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생산자들이나 한약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고시된 규격화 시행은 보사 행정의 졸속으로 평가받을만 하며, 이번 공청회마저 단순히 규격화 고시를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매듭지어진다면,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생산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격화 정착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가뜩이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서 생산 위축을 가져오는 이 시기에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정책 배려를 기대한다.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내 생약 재배 농가들의 의견과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므로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회장단회의 개최
지난 10월13일 협회회의실서

지난 10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는 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우리생약전시회 개최와 시호, 인삼, 길경 등에 대한 계약재배지 선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각 지역의 지부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우수 특산 생약을 출품토록 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키로 하고 생약전시회 시기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잠정합의했다.

준비위원장에 임연학 수석부회장, 준비위원은 조만식 기획실장, 남정학 중앙공판장장이 맡아 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호, 인삼, 길경에 대한 재배지선정에 관해 인삼은 포천, 길경은 영주 덕산, 삼도시호는 종전과 같이 전라남도와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최종적인 것은 각지역 생산회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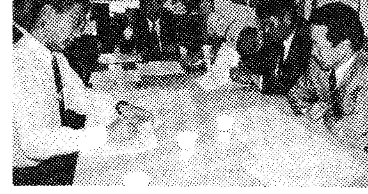
단신

녹용 국제심포지엄 생약학회 주최

지난 10월 7일 한국생약학회(회장 이경순)는 녹용의 생산, 유통, 규격, 효능 및 임상응용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홀에서 개최했다.

편집위원회의 개최

지난 10월 17일 한국생약보 편집위원회가 본 협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생약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됐다. 편집위원장인 이종용 회장을 비롯 편집위원은 본협회 박만종 고문, 임연학 수석부회장, 전근택 사무국장(편집국장겸), 성낙술 과장(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과), 김상현 부장(농민신문사) 등 6명이다.



경기도 포천 재배현장 답사

본 협회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과는 오는 11월 5일에서 6일 1박2일 일정으로 포천 생약농장을 답사, 약용작물 현장애로기술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

동정

본회 남정학 중앙공판장장은 지난 10월 21일 49주년 경찰의 날, 지역경찰 행정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

본 협회 이종용 회장은 오는 11월 16일 농촌진흥청에서 11월 14일~18일 5일 일정으로 열리는, 94전업농가교육과정에 강사로 출강, 「자생약초 순화재배 및 주요품목 계약재배 안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

내방

▲정형모 부회장 ▲유진걸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옥용 이사 ▲김창한 이사 ▲이문섭 이사 ▲이지대 이사 ▲김성배 이사 ▲배성한 이사 ▲박영임 이사 ▲장지홍 이사 ▲이종렬 이사 ▲라한주 이사 ▲심재석 이사 ▲정연수 이사 ▲허영 감사 ▲이승엽 지부장(전라북도) ▲이인기 소장(포천군) ▲최윤식 소장(용인군) ▲이성덕 소장(구리시) ▲신현석 소장(양평군) ▲이웅황 소장(안성군) ▲이한승 소장(제천군) ▲이광우 소장(충주시) ▲최상환 소장(경주시) ▲백문기 소장(합천군)